

#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무주군, 여름철 장마 대비 만전

## 장수군,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 실시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북긴급재난지원금을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지급한다.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1일 24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대상으로 1인 1카드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장수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구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별 마을회관에서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한다.

현장 방문 신청 교부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읍·면별 일정은 장수읍 5~13일(7일간)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서면 5~12일(6일간)까지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분 3차례, 반암면 5~9일(5일간)까지, 장계면 5~6일(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천천면 5~8일(4일간)까지 오전 9~15시, 계남면 5~6일(2일간)까지, 계북면 7~9일(5일간)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마을별 일정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는 오는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법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9일까지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5~9일까지 마을별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진안군의 대상자는 총 2만5335명으로 6월 2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 5일~8월 6일까지로 군민들의 편의도모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9일까지 5일간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 320여명이 11개 읍·면 316개 마을에 투입된다. 집을 비웠거나 개인 사정으로 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는 주말인 7월 10~11일을 포함해 8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농협과 전북은행 무기명 선불카드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진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일부 업종 제한)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군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요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마을담당관 통해 선불카드 배부

무주군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위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마을담당관 제도(1마을 1담당)를 운영한다.

다고 5일 밝혔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제 5. 28 공포)에 의거,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1인당 10



무주군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위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마을담당관 제도(1마을 1담당)를 운영한다.

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마을담당관 제도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의 담당 마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수렴해 군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간다는 취지다. 공무원 350여 명이 6개 읍·면 150개 행정마을의 1만2,749세대를 찾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하며, 코로나19 관련 불편 사항과 의견도 수렴한다. 미수령자의 경우 이후 7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무주군내로 제한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라북도로 환수된다. 신청시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분증이 지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말소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사전점검회의 열고 점검·대응 계획 공유

무주군이 여름철 장마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황인홍 군수와 김희욱 부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간부 공무원들과 분야별 담당들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전점검회의를 갖고 점검 내용과 대응 계획들을 공유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산사태와 낙석, 붕괴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분야별 예찰을 강화했으며 강풍에 대비해 간판과 안내판, 낙하우려 시설물을 결박·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공사현장 등지에는 수방장제 및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해 놓은 한편, 긴급복구 태세를 갖춰 민간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마을방송과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으로 호우나 강풍 특보 발령 시 외출 자제를 독려하고 재난우려 지역에서의 대피를 도울 계획이다. 무주군은 호우 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은 "8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니 다소 긴장이 된다"며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던 만큼 올해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해 여름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의 상흔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나 지역적 편차가 클 것

이외에도 군은 사계절마다 다른 정취를 선사하는 산림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운동 및 체험시설을 두루 갖춘 자연체험과 휴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덕곡계곡의 천혜의 소나무 숲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며, 낙화놀이 두문마을 등 안성면의 특색있는 마을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락마을 사과체험 등 주민참여를 통해 실질적 지역주민 소득 창출로 연결시켜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앞서 군은 산림욕장 조성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민들의 이용을 통한 지역 생활복지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최적 힐링공간 산림욕장 조성 시동

무주군이 안성면 덕산리 일원에 힐링이 가능한 최적의 산림욕장 조성시동을 걸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일원에 25만3,374㎡ 규모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연내까지 산림욕장 조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를 토대로 산림욕대와 평상, 산책로와 등산로, 울창한 숲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전국 최대 힐링 코스의 산림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반 설명회는 지역 농업·농촌의 현실에 따른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과 추진배경, 실천시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읍·면 리더 등의 지역 먹거리 중합계획(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진안형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주제인

마을 리더 육성으로 지역 농업인 등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 확대가 될 자리로서 준비됐다. 군은 설명회에 이어 지역의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관련 주제들의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푸드플랜의 의결기관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진안군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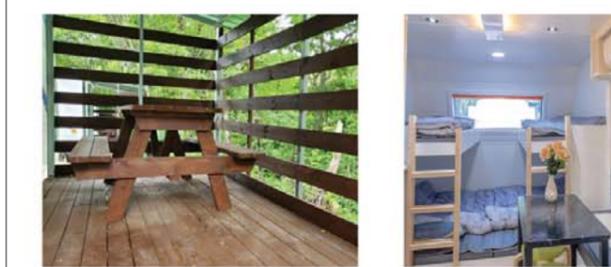
##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 읍·면 리더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5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각 읍·면 이장 및 부녀회장 등 군민 9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읍·면 리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농업·농촌의 현실에 따른 푸드플랜 수립 필요성과 추진배경, 실천시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읍·면 리더 등의 지역 먹거리 중합계획(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진안형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주제인

마을 리더 육성으로 지역 농업인 등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 확대가 될 자리로서 준비됐다. 군은 설명회에 이어 지역의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관련 주제들의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푸드플랜의 의결기관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진안군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